

##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 2시간]

모집단위	학부·과	수험번호	성명
------	------	------	----

###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불일치 시 0점 처리).
4.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5. 각 문제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 제 시 문 □

[가] 최고 비상사태는 국민과 지도자들의 단호한 행동과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영웅적 결단의 시기이다. 그러나 또한 피할 수 있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조치들이 행해지는 절박한 시기이기도 하다. 최고 비상사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굳건한 가치들과 우리의 집단적 생존이 절박한 위협에 처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 만일 나치의 승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고의적인 민간인 살상을 알면서도 감행한 폭격의 비도덕성이 동시에 도덕적으로 옹호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는 서로 대립적인 두 도덕적 논의 사이에 위치한다. 첫 번째 도덕적 논의는 무고한 사람은 결코 의도적으로 공격당해서는 안 된다는 권리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 도덕적 논의는 무고함이라는 가치를 행복 추구와 같은 여러 가치들 중의 하나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가치의 경중을 따져 보아 판단하는 유연성을 발휘한다. 두 도덕적 논의는 모두 우리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상반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둘 중 어느 것도 상대 주장을 누를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으며, 둘 중 어느 것도 우리가 무시해 버릴 수 있을 만큼 약하지 않다. 철학적 혼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이러한 두 입장의 정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반된 두 도덕적 입장 아래에서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를 정당화하는 주장 중 하나는, 도덕적 공동체는 심대한 비도덕적 행동을 도덕적으로 가능케 한다는 주장이다. 도덕적 공동체는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나치와 같은 사례처럼 훨씬 더 흉포한 비도덕성에 직면해서만 비도덕적 행동을 감행한다. 특히 그와 같은 사악한 자들의 공격이 거의 성공에 근접하는 순간에만 도덕적 공동체는 그렇게 행동한다.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 대응만이 사악한 자들의 성공을 저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때에만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만’이라는 조건 어구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통해 그 공동체가 도덕적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최고 비상사태 윤리는 사실상 쉽게 허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비상사태에 관한 윤리적 논의는 이데올로기적인 용법이나 사후적인 변명의 용법으로도 남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은 모든 형태의 도덕적 주장에 내재하며, 심지어 개인의 권리 주장 역시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사항들이 적절히 고려될 때,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는 보다 넓은 도덕적 세계에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의 정상성을 강화한다. 무고한 사람들의 권리 수호가 우리 의무의 전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가 전하는 메시지이다.

[나] 동쪽 집 처녀는 정숙하고 예뻐지만 중매하는 사람이 없어 서쪽 이웃에 가서 물었다. 이웃에 사는 서쪽 집 여인은 비루했지만 시집을 잘 갔다.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실 수 있었는지요?”

서쪽 이웃 여자가 말했다.

“다섯 가지 방법을 썼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누런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검은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큰 발은 싸매고, 때가 낀 몸은 옷으로 가리고, 사람이 오면 차를 내어 놓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시집을 가셨는데요?”

“나는 선비, 장사꾼, 기술자, 일꾼, 거지 이런 사람들과 모두 결혼을 해 보았지요.”

“당신을 비루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서쪽 집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고 목을 움츠리더니,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아가씨, 나를 천박하다고 생각하시우? 이러니 아가씨가 나이 스물이 되도록 중매하는 사람이 없는 게지. 내가 세상 여자들을 많이 봤지만 다 나와 비슷합니다. 남정네들도 많이 봤지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없었구요. 그러니 누가 나를 천하다고 버리겠수?”

처녀가 말했다.

“그래도 당신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벌써 시집을 갔겠지.”

처녀가 고개를 숙이며 탄식했다. 그러자 서쪽 집 여자가 말했다.

“한숨 쉴 것 없어요. 내가 당신 잘못을 따져 보지요. 처녀가 장성했는데도 화장품 장수가 처녀의 집 문을 지나면서도 물건을 팔지 못했지. 여자들은 서로 모여 웃고 즐기는데 혼자서만 깊이 생각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 또 여자들이 수시로 하는 화장도 하지 않았어. 내가 당신 태도를 보니,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시우? 세상 사람들이 예쁘다고 부러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쁘다고 할 수 있는 거유. 그런데 당신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을 못 만났으니 언제 짝을 찾겠누? 당신 성격과 외모가 그러면서도 자신이 스스로 중매쟁이가 되지 못하고, 오만하게 중매를 기다리니 그게 당신 잘못이우. 당신이 지난날의 모습을 바꾸고 새 단장을 하고서 문가에 기대 웃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유. 우리 집 문 앞으로 나던 발자국이 당신 집 앞에 가득할까 걱정하겠지.”

이 말을 듣자 처녀의 얼굴빛은 냉담하게 바뀌었다. 옷을 떨치고 일어나서는 서둘러 돌아갔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결코 왕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 근대적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표준어의 제정은 근대적 교육, 문학, 출판, 언론 등의 확립이라는 목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다. 근대 민족국가들에게 있어 표준어 제정은 단일한 모국어의 정립을 의미했다. 그리고 단일한 모국어의 정립됨으로써 국가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출판, 언론 등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민족 문화의 정립이라는 사명 의식으로 단일한 모국어의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표준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근대 국가의 모국어 정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근대 국가에서는 국가의 통일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 구성원들에게 일관성 있는 표현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표준어의 확립은 방언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표현이 사장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우리말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물이나 사태를 가리키는 서로 다른 말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자두와 오얏’, ‘종달새, 종다리, 노고지리’, ‘진눈깨비와 눈비’, ‘접동새와 두견새’ 등이 선택을 강요당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어학회가 1936년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한 것은 써야 할 단어와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선별해 발표한 꼴이 되어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극단적인 대립 관계로 호도한 면이 있다.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표현을, 써야 할 단어와 쓰지 말아야 할 단어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혼란을 부추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오류 표현을 양산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전 편찬 중에 이루어지는 어휘의 선정과 뜻풀이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어떤 어휘의 방언형과 표준어형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게 되면 표준어형의 뜻풀이가 그대로 방언형에 적용되어 별도의 뜻풀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언 어휘는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기본 의미는 표준어와 같더라도 그 지역 방언에만 있는 특별한 의미나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어휘의 미세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한 지역에서의 별도의 쓰임을 무시하고 한 지역 혹은 한 계층의 말인 표준어와 동일시해 버린 것은 표준화 과정의 또 다른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사정(査定)하다: 조사하거나 심사하여 결정하다.

[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환경이 악화되면 귀족보다는 일반 서민 대중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먼저 고통을 당하는 법이다.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 균역법 등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을 시행하였으나 노론 세력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극소수 양반 사대부가 아닌 절대 다수의 민중들은 살아남기 위해 체제에서 용납하지 않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순조 연간의 시작(1800)과 더불어 불거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수구 반동적 세도정치의 악폐는 삼정 문란과 함께 극심한 빈곤을 초래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한 민중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흥경래가 이끌었던 평안도 농민전쟁(1811~1812)을 시작으로 서울 지역 쌀값 폭등에 대한 도시 빈민의 저항(1833)이 있었다. 1862년의 임술 농민 항쟁은 경상도 진주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라도 익산 지역으로 번져 삼남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 약 72개 고을에서 일어났다. 이 항쟁들의 공통점은 제도의 위기가 깊어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가운데, 가난한 농민을 중심으로 민중들이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목숨을 걸고 봉기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갑오농민전쟁의 경우 생존권과 아울러 근대적인 인간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특징이 있다. 갑오농민전쟁은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들이 봉기한 것이 시초였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무력으로 장악하자 정부군은 농민군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평화 조약을 맺은 후 정부도 농민군에게 부분적이거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농민군과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 계속 민중들을 괴롭혔다. 그 결과 농민들은 다시 봉기하게 되었고 정부는 일본군을 끌어들이므로써 외국 군대의 힘으로 자국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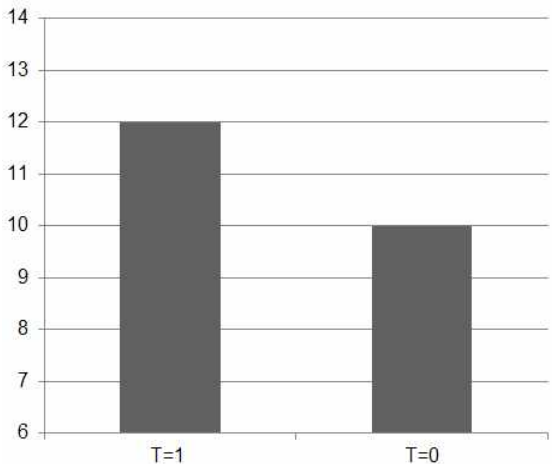
19세기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선의 지도층이 정치체제의 근본 사상인 유교의 민본주의를 망각한 채 민중을 도탄에 빠뜨렸음에도 법치를 통한 기존 질서의 유지에 집착한 나머지 제도 개혁을 등한시 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한 조선 말기 민중의 저항 방식은 비록 폭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체제 개혁을 통한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와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 □ 문 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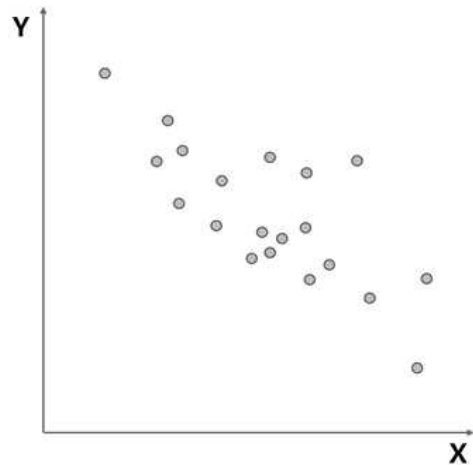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제 2】**



<그림 1>



<그림 2>

A라는 스포츠 종목에서 일부 선수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규정상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약물은 선수의 기량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선수 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등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위의 두 그래프는 이 종목에서 약물 복용 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각각 동일한 기간 동안 조사한 자료로서, 약물 복용과 선수들의 평균 득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1>은 약물을 복용한 일부 선수들(T=1)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T=0) 각각의 경기당 평균 득점을 나타낸다. <그림 2>는 이 종목에 속한 20개 팀들에서 각 팀별로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의 비율(X)과 팀의 경기당 평균 득점(Y)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 준다. 위 그래프들에서 나타난 통계적 특성은 조사 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

한 선수의 약물 복용이 다른 선수의 기량이나 득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의 경우 복용량이 서로 같다고 가정할 때, <그림 1>과 <그림 2>가 의미하는 것을 각각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그림 2>가 같은 기간에 공존하게 된 이유를 추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제 3】

<보기>는 하나의 가상 상황이다.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시오. 단,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여,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보기>

정부가 결정한 B라는 스포츠의 남북 단일팀 구성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는 우리 팀만 출전 자격이 있었는데 이번 단일팀 구성으로 출전 자격이 없던 북측 선수 일부가 참여하는 대신 우리 측 선수 일부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 기회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의 남북 관계 상황으로 보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이득이 된다면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